

2010년 3월 22일 보낸 편지입니다.(753조회)

아름다운 도전  
美しい挑戦

어느 세상에서나  
どの世の中にも

인간 본연의 진실이 있고,  
人間本来の真実があつて

진실은 마침내 통하게 마련이다.  
真実は、最後には通じるものです。

꼭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 위해 도전하는 것은 아니다.  
必ず満足するくらいの成果を得るために、挑戦するのではない

최선을 다한다면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  
最善を尽くして、得ることもでき、得ることができないかもしれない。

하지만 도전은 반드시 자신의 세계를 넓히게  
しかし、挑戦は必ず自身の世界を広く

마련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するものだ。それが重要なことだ。

- 김희중의《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중에서 -  
- キム・ヒジュンの<心が温かい人と会いたい>より -

\* 도전은 새로운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 挑戦は新しい道をつくることのように

무(無)에서 유(有)를 만드는 창조 작업이기도 합니다.  
無から、有を作る創造作業でもあります。

온갖 위험과 시련이 뒤따르지만 '진실은 통한다'는 믿음과  
総ての危険と試練が後に続くが' 真実は通じる' という信頼と

흔들리지 않는 용기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ゆれない勇気で一歩、一歩前に出れば

어둡고 습한 절망의 땅에도 희망의 새 길이  
暗く、じめじめした絶望の土地にも希望の新しい道が

조금씩 조금씩 넓게 열립니다.  
すこしずつ、すこしずつ広く開かれます。

(2007년 3월 5일자 앙코르메일)  
(2007年3月5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2010년 3월 23일 보낸 편지입니다.(1,180조화)

새벽 겸손  
夜明けの謙遜

새벽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겸손입니다.  
夜明けの時間に起きることは、謙遜です。

반성하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  
反省する心、学ぼうとする心、会いたい心

듣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느껴서  
聞こうとする心、そして自身に不足することを感じ

새벽에 채우려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夜明けに満たそうとする、そのところがまさに謙遜だ。

새벽의 2시간을 통해서 당신이 배운 것 중  
夜明けの2時間を通して、あなたが学ぶことのなかで

가장 큰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一番大きなことが、まさに謙遜です。

- 권민의《새벽거인》중에서 -  
- ウォン・ミンの<夜明け巨人>より -

\*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 夜明けに起きることも

겸손이라는 말이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謙遜という言葉が、新鮮に近づいてきます。

부지런한 사람만이 새벽에 깨어 일어납니다.  
勤勉な人だけが、夜明けに目が覚めて起きます。

부지런한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 곧 겸손이 아닐까,  
勤勉な人に必要な徳目がまさに謙遜ではないか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하지 않고 부지런하기만 하면  
という思いが浮かびます。謙遜せず勤勉さだけあれば

오히려 주변을 해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むしろ、周りに害する結果をもたらすためです。

겸손해야 새벽에 일어난 보람도 큼니다.  
謙遜してこそ、夜明けに起きた効果も大きいです。

겸손 [謙遜]

[명사] <하다형 형용사> 謙遜;へりくだること;自分を控えめにする。[반의어] 거만(倨慢)  
부지런

[명사·하다형 형용사] 勤勉;まめまめしいこと。

덕목 [徳目]

[명사] 徳目;徳を分類した個々の名称(忠·孝·仁·義·礼·智など)。

해; -치다 [害—]

<1> [타동사] 害する;損なう。

<2> [타동사] (人を)傷つける;あやめる;殺す。

날다1

<1> [타동사] (子・卵などを)産む。

<2> [타동사] (結果を)生む;生じる;作る;もたらす。

2010년 3월 24일 보낸 편지입니다.(1,175조회)

꽃이 피어난다!  
花が咲きはじめる!

우리 곁에서  
私たちのそばで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花が咲きはじめることが、どれだけ驚くべき

생명의 신비인가. 곱고 향기로운 우주가  
生命の神秘か。美しく、香しい宇宙が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잠잠하던 숲에서  
戸を開いているでしょう。静かだった森から

새들이 맑은 목청으로 노래하는 것은  
鳥たちが、清らかな声で歌うことは

우리들 삶에 물기를 보태주는  
私たちの人生に、水分を補う

가락이다.  
調べだ。

- 법정의《산방한담》중에서 -  
- 法頂の<山莊閑談>より -

\*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봄은 옵니다.  
\* いくら冬が、長くとも春は来ます。

꽃샘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꽃은 피어납니다.  
春寒がいくら勝気に振舞っても、花は咲きはじめます

어김없이 봄은 오고, 어김없이 꽃이 핀다는 사실이  
間違いなく春は来て、間違いなく花が咲くという事実が

신비롭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긴 사람일수록  
神秘です。人生の冬が長い人ほど

그 신비로움이 더 큰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その神秘さが、さらに大きな希望として近づきます。

봄은 왔고 꽃들이 막 피어납니다.  
春は来た、花たちはまさに咲きはじめます。

피어-나다

<1> [자동사] (花などが) 咲き始める。

<2> [자동사] (消えかけた火が) 再び起こりかける。

잠잠-하다 [潛潛—]

<1>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静かだ;ひっそりしている。

<2>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黙っている;口をきかない。

목-청

<1> [명사] 声;声音。

<2> [명사] 声帯。

물-기 [一氣]

[명사] 水氣; 汁氣; 水分。

보태다

<1> [타동사] (不足分を)補う; 満たす。

<2> [타동사] 加える; 添える; 足す。

가락1

<1> [명사] (音の)調子; 節; 拍子; 調べ。

<2> [명사] (踊り身振りの)リズム; 律動。

산방 [山房]

[명사] 山房。

<1> [명사] 山の中の家; 山荘。

한담 [閑談·閒談]

[명사·하다형 자동사] 閑談。

<1> [명사·하다형 자동사] 氣ままにのんびり話をする事。

しゅん-かん [春寒]

[명사] 춘한. 봄추위. 꽃샘 추위. [동의어] 是るさむ. [참고] 주로 편지·俳句 등에서 씀.

기승(을) 떨다

《관용구》 勝ち氣に振る舞う。

기승(을) 부리다

《관용구》 ⇒ 기승(을) 떨다

어김없-이

[부사] 間違はなく; 違わず。

막1

<1> [부사] たった今; 今しがた; 今しも。

<2> [부사] ちょうど(その時); まさに。

2010년 3월 25일 보낸 편지입니다.(1,192조회)

베푸는 사람  
施す人

그날 나는 누군가에게  
その日私は、誰かに

미소 짓기만 해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微笑を浮かべているだけで、施す人にな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学んだ

그후 세월이 흐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지지 의사표시 하나가  
それ以後、年月が流れ、温かい言葉一つ、支持の意思表示一つが

누군가에게는 고마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誰かには、ありがたいプレゼントにな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悟った。

내가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私が横に少しだけ動けば、他人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  
座ることができる椅子が生じる。

- 마야 안젤루의《딸에게 보내는 편지》중에서 -  
- マヤ・アンジェロウの〈娘に送る手紙〉より -

\* 작은 미소 하나로도  
\* 小さな微笑一つも

누구나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誰でも、施す人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

나의 작은 몸짓 하나만으로 주변이 밝아집니다.  
私の小さな身振りひとつで回りが明るくなります。

내 손이 조금만 움직이면 방안이 깨끗해지고,  
私の手がちょっとだけ動けば、部屋中が綺麗になって

내 몸이 조금 움직이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私の体がちょっと動かせば、世界が明るくなります。

나와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私と他人に幸せと

기쁨을 안겨 줍니다.  
喜びを抱かせてくれます。

베플다

{타동사·ㄹ 불규칙 활용} 他の人々のために何かを提供すること。

<1> {타동사·ㄹ 불규칙 활용} (宴会·席などを)設ける;催す;張る。

지지 [支持]

[명사·하다형 타동사] 支持;(主義·主張·政策などに賛同して)あと押しすること;肩を持つこと。

몸-짓

[명사·하다형 자동사] 体を動かす様子;身振り。

20100325.txt

Maya Angelou (マヤ・アンジェロウ)

2010년 3월 26일 보낸 편지입니다.(1,992조회)

검열 받은 편지  
検閲を受けた手紙

1943년 9월 12일에 릴리는 처음으로  
1943年9月12日にリリーは初めて

가족에게 편지를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家族に手紙を書いてもよいという許可を受けた

앞장에는 검열을 실시한 여성 감시인의 메모가 있다.  
前には検閲を実施した女性監視員のメモがある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 모두에게. 내 걱정은 하지 마.  
”愛する私の子供たちすべてへ、私の心配はしないで

나는 확실히 잘 지내고 있고 건강해. 너희들도 알잖아,  
私は確実に元気で、健康よ。お前たちも分かってるんじゃない

엄마는 항상 꼬떡없이 일찍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ママはいつも、しっかりと早く起き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

당연히 너희들이 보고 싶고 집이 그리워진단다.  
当然、お前たちに会いたい、家が懐かしい

아빠는 어떻게 지내시니? 어디 계셔?  
パパはどうしているの?どこにいるの?

무슨 일을 하시니?”  
何をしているの?”

- 마르틴 되리의《상처입은 영혼의 편지》중에서 -  
- マルティン・デリーの<傷を受けた魂の手紙>より -

\* 나치 죽음의 수용소에서  
\* ナチの死の収容所で

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一人の母が、子供たちに送った手紙です。

검열 때문에 '잘 지내고 건강하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検閲のため、よく暮らして、健康だ」と事実と全く違った

내용을 적어 보냈지만, 그 자녀들은 '행간'을 읽었습니다.  
内容を書いて送ったが、その子供たちは、'行間'を読みました

우리는 때로 서로의 행간을 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私たちは、たまにお互いの行間を読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きがあります。

'나 잘 지낸다'는 말을 곧이곧대로만 들으면  
'私はよく暮らしている'という、言葉をありのままに聞けば

그의 아픔과 슬픔을 놓칠 수 있습니다.  
そのつらさと、悲しみを落とすことができます。



검:열 [檢閱]

[명사·하다형 타동사] 檢閱。

<1> [명사·하다형 타동사] 檢査·閱覽すること。

앞장

<1> [명사] 先頭;先頭の人;いちばん前。

<2> [명사] 『광산·광물』砂金掘り場で掘り進んで行く前方の地面。

끄떡없-이

[부사] びくともせず;平気で;しっかりと。

적다

[타동사] 書く;書きとめる;記録する。

곧이-곧대로

<1> [부사] ありのままに;率直に;偽りなく。

<2> [부사] 気ままに;何のはばかりもなく。

놓치다

<1> [타동사] (手から)落とす。

<2> [타동사] (チャンスなどを)逃す;失う;なくす;逸する;はぐれる。

마르틴 되리(Martin Doerry)

2010년 3월 27일 보낸 편지입니다.(274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한창주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ハン・チャンジュ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좋아하는 일을 하자  
よいことをしよう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よいことをする人は、

일을 시켜서 하지 않는다. 스스로가  
物事をさせたりしない。自らが

좋아서 하는 일이니 힘들어도 지치지 않는다.  
好きですることだから、つらくてもへこたれたりしない

시켜서 하는 일은 시키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させてすることは、させる人がよくできるか

감독을 한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질책을 받는다.  
監督をする。ちゃんとできなければ、叱責をうける

하지만 좋아서 하는 일은 감독할 필요가 없다.  
しかし、好きですことは監督する必要がない

- 오종남의《은퇴후 30년을 준비하라》중에서 -  
- オ・ジョンナムの<引退後30年を準備しよう>より -

\* 좋아하는 일을 하다보면  
\* よいことをしてみれば

밥 먹는 시간조차 놓친 경험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ご飯を食べる時間さえ、失った経験を1度くらいはするようになります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다면 그 이상  
そんなに好きなことが、職業になれば、これ以上

바랄 것이 없겠지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가  
望ましいことはないでしょう。自身が好きな趣味が

직업이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노후생활이  
職業になった場合もあるでしょう。老後生活が

길어지는 시대에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延びている時代に、よく考えてみることです。

내 안에 숨겨진 열정을 끄집어 내어  
私の中に隠れた熱情を引き出して

좋아하는 일을 다시 찾아보시면  
好きなことをもう一度探し出してみるの

어떨까요.  
どうでしょうか

좋은 글 주신 한창주님께  
いい文章を書いてくださったハン・チャンジュさまに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感謝と祝賀の挨拶をいたします。

- 아마동은 오늘도 모입니다.  
- アマドン(朝の手紙マラソントンアリ)は今日も集まります

좋은 주말 보내시고  
いい週末を送って

오늘도 내일도 많이 웃으세요.  
今日も明日も笑ってください。

놓치다  
<1> [타동사] (手から)落とす。  
<2> [타동사] (チャンスなどを)逃す;失う;なくす;逸する;はぐれる。  
끄집다  
[타동사]引き寄せる;つかみ寄せる。